

TV

TV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3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자이언트’ 월화극 1위... ‘동이’ 늘었다

70-80년대 건설가 성공스토리... 선 굵은 시대물로 인기 급상승

SBS TV 창사 20주년 대하드라마 ‘자이언트’가 주인공 이강모(이범수 분)의 운명과 같은 궤적을 그리며 성공 가도에 접어들었다. 지난 5월10일 경쟁작인 MBC TV ‘동이’가 25.1%를 기록하며 한창 탄력이 붙었을 때 시청률 11.8%로 출발한 ‘자이언트’는 이후 두 달여 동안 10%대 초중반의 시청률에 머물렀다. 6월에는 SBS의 월드컵 중계로 편성도 뒤죽박죽됐다. 그러나 ‘자이언트’는 그 모든 장애를 딛고 지난 달 말부터 상승세를 타더니 결국 지난 10일 ‘동이’를 잡는 데 성공했다. 이는 극 중 이강모가 가족의 해체, 더부살이, 살인 누명 등의 역경을 딛고 마침내 건설업자로 변신하는 상승곡선과 오버랩된다. 강남 땅 개발기를 배경으로 한 가족의 파란만장한 삶과 주인공의 성공담을 그리는 ‘자이언트’(극본 장영철·연출 유인식)는 굵직한 힘이 느껴지는 시대극으로서 향수를 자극하고 ‘제왕왕 김탁구’에 이어 주

인공의 석세스 스토리로 감동을 전해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불륜과 복수에 의존한 ‘감정 드라마’가 대세를 이루는 요즘 드라마 판에 ‘자이언트’는 오랜만에 맞보는 선 굵은 드라마다. KBS 1TV 대하사극 ‘대조영’으로 큰 그림을 그렸던 장영철 작가가 집필하는 ‘자이언트’는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힌 다양한 남성상을 시대극으로 조망하며 남성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자이언트’의 시청률이 지난달 삼척교육대와 근로봉사대 등 거친 내용을 다루면서 상승세를 걸은 것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SBS 박종 드라마센터장은 11일 “주인공 강모가 고생할수록 시청률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굵직한 이야기에 남성 시청자들이 매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당시 서술 퍼렇던 중앙정보부의 이야기와 정치판의 권모술수, 끊이지 않는 온



갖 시련에 맨몸으로 맞서 싸우면서 선함을 잃지 않고 야망을 키우는 강모의 모습에서 ‘여성성’은 찾기 힘들다.

또한 ‘코리안 드림’을 상징하는 ‘부동산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는 점도 앞으로 남은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는 요인이다. 드라마는 지금의 ‘금싸라기 땅’ 강남이 어떻게 개발됐는지를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부터 보여주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실제로 전국의 허허벌판을 돌아다니며 공사장 장면을 촬영 중이다. /연합뉴스

Section for '제19회 광일盃' (19th Kwangil Cup) Go game. Includes a Go board diagram, rules, and a photo of the organizer, Yoo Gyeol-gwan.

Section fo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Fortune telling for today). Lists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with brief description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굿모닝 잉글리쉬', '오하요우 니혼고', '니하오 쑹구위', and '한자 이야기'. Each column contains a lesson with English, Korean, and Japanese text.